

2020년 5월 1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대에 힘입어 급등 모더나 테라퓨틱스, 코로나 백신 1차 임상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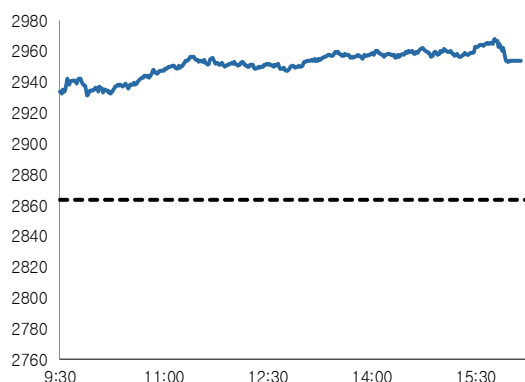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코로나 공포 완화

미 증시는 모더나(+19.96%)가 첫번째 임상 시험 결과 성공적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특히 전일 파월 연준의장이 백신이 성공하면 연말에는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과 시너지 효과를 주며 금융, 소비관련주, 산업재, 에너지 업종 등이 상승 주도. 반면, 일부 제약 업종과 언택트 관련 종목의 경우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 특징(다우 +3.85%, 나스닥 +2.44%, S&P500 +3.15%, 러셀 2000 +6.10%)

미국 제약 회사인 모더나 테라퓨틱스(+19.96%)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1차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 했는데 모든 대상에서 항체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 모더나의 임상 시험 자금은 미 국립 보건원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 지난 금요일 트럼프의 연말까지 백신 개발 완료 발언에 대한 기대를 높임. 향후 일정은 소수 환자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상 시험을 6월에 진행하고, 그 시험이 성공적이면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임상을 7월에 진행. 이 또한 성공적일 경우 가을에는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다만, 모더나는 백신 접종시 코로나 19 감염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대해석은 경계

한편, 전일 파월 연준의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 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그 전제 조건으로 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런 가운데 발표된 모더나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는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됨. 전반적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금융, 여행, 항공, 리조트, 산업재, 에너지 등이 급등한 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및 언택트 관련 종목의 경우 부진. 더불어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도 상승이 제한되는 차별화가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1,937.11	+0.51	홍콩항셱	23,934.77	+0.58
KOSDAQ	690.85	-0.16	영국	6,048.59	+4.29
DOW	24,597.37	+3.85	독일	11,058.87	+5.67
NASDAQ	9,234.83	+2.44	프랑스	4,498.34	+5.16
S&P 500	2,953.91	+3.15	스페인	6,779.30	+4.70
상하이종합	2,875.42	+0.24	그리스	609.52	+2.74
일본	20,133.73	+0.48	이탈리아	17,401.45	+3.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코로나 피해 업종 급등

모더나(+19.96%)는 양호한 백신 1차 임상 결과를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반면 임상 진행 중인 길리어드 사이언스(-1.97%), 리제네론(-2.85%)은 물론 암젠(-2.92%), 버텍스(-1.58%) 등은 하락했다. 한편, 부킹닷컴(+12.51%) 등 여행 관련주, 카니발(+15.18%), MGM(+10.54%), 윈 리조트(+4.85%) 등 카지노, 리조트 관련주, 델타항공(+13.91%), 아메리칸 에어라인(+9.18%)은 물론 보잉(+12.87%) 등 항공주, GM(+9.63%), 포드(+8.37%) 등 자동차 업종, 캐터필라(+6.58%) 등 기계 업종, TJX(+5.49%), 로스스토어(+6.24%), L브랜드(+17.59%) 등 소매 유통업종 모두 급등했다.

더불어 JP모건(+5.30%), 씨티그룹(+8.95%), 웰스파고(+8.78%) 등 금융주는 경기 재개 기대 속 급등했으며, 파월 연준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엑손모빌(+7.95%), 코노코필립스(+6.68%) 등 에너지 업종도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넷플릭스(-0.35%), 줌 비디오(-5.80%) 등 언택트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고 아마존(+0.68%) 등 대형 기술주도 상승이 제한 되었다. 애플(+2.36%)은 매장 오픈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3.40%), 브로드컴(+5.04%), 스카이웍(+6.09%) 등 애플과 반도체 업종도 급등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43%	대형 가치주 ETF(IVE)	+4.06%
에너지섹터 ETF(OIH)	+12.58%	중형 가치주 ETF(IWS)	+5.90%
소매업체 ETF(XRT)	+4.25%	소형 가치주 ETF(IWN)	+7.82%
금융섹터 ETF(XLF)	+5.13%	대형 성장주 ETF(VUG)	+2.28%
기술섹터 ETF(XLK)	+2.45%	중형 성장주 ETF(IWP)	+2.9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88%	소형 성장주 ETF(IWO)	+4.89%
인터넷업체 ETF(FDN)	+0.89%	배당주 ETF(DVY)	+5.12%
리츠업체 ETF(XLRE)	+4.87%	신흥국 고배당 ETF(DEM)	+3.80%
주택건설업체 ETF(XHB)	+7.9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2.77%
바이오섹터 ETF(IBB)	+1.16%	미국 국채 ETF(IEF)	-0.61%
헬스케어 ETF(XLV)	+0.83%	하이일드 ETF(JNK)	+1.70%
곡물 ETF(DBA)	+0.59%	물가연동채 ETF(TIP)	-0.01%
반도체 ETF(SMH)	+4.31%	Long/short ETF(BTAL)	-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2.87	+7.55%	+1.07%	+16.40%
소재	334.75	+4.56%	+2.90%	+8.59%
산업재	534.90	+6.61%	+1.59%	+3.05%
경기소비재	972.49	+3.20%	+2.05%	+6.59%
필수소비재	596.29	+1.66%	+0.31%	-2.11%
헬스케어	1,178.58	+0.94%	+0.12%	+1.18%
금융	367.15	+5.32%	+1.31%	+0.49%
IT	1,682.71	+2.56%	+0.34%	+9.06%
커뮤니케이션	175.85	+2.15%	+0.79%	+7.76%
유틸리티	288.82	+4.14%	+1.79%	-2.38%
부동산	201.21	+4.93%	-1.49%	-2.5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4.03% MSCI 신흥 지수 ETF 는 3.9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5.2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백신 개발 성공 기대감이 확산되자 경제 재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등 했다. 특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상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완화된 점은 외국인의 매수 기대를 높인다는 점을 감안 수급적인 영향도 우호적이다. 더불어 적극적인 대응을 언급한 파월 연준의장 뿐만 아니라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이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통화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 증시뿐만 아니라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5% 넘게 상승하는 등 유럽 증시도 급등 했다. 특히 미 증시와 더불어 자동차, 금융, 여행, 항공 등 코로나 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의 강세를 예상케 한다. 반면, 글로벌 증시에서 또 다른 특징은 코로나 19 로 인해 수혜를 봤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경우 차익 욕구가 높아지며 매물이 출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개별 종목의 경우 차익 욕구가 높아지는 등 차별화 속 외국인의 수급 개선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 지표 개선

5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30)은 물론 예상(33)을 상회한 37 로 발표되었다. 비록 기준선인 50 을 하회했으나 전월 급락에서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모더나 백신 임상 결과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다. 이는 경제 재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원유 수요 증가 기대를 예상케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가 회복되면 문제시 되고 있는 재고 포화 상태가 완화될 수 있어 원유 시장 공포 심리가 약화 된 점도 우호적이었다. 여기에 OPEC 주요국들은 물론 미국의 추가 감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국제유가는 결국 8% 넘게 급등했다.

달러화는 무역 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 속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노르웨이 크로네, 러시아 루블 등 상품 환율 또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모더나의 백신 임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특히 장기물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자 상승폭이 컸다. 한편, 파월이 경제 지원을 위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보다 유연하고 강력한 통화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며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속 급등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90%, 철근은 1.9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31.82	+8.12	+31.81	Dollar Index	99.619	-0.78	-0.62
브렌트유	34.81	+7.11	+17.48	EUR/USD	1.0916	+0.89	+1.01
금	1,734.40	-1.25	+2.14	USD/JPY	107.33	+0.25	-0.31
은	17.468	+2.33	+11.40	GBP/USD	1.2196	+0.66	-1.13
알루미늄	1,496.00	+2.33	-0.10	USD/CHF	0.9726	+0.11	-0.04
전기동	5,317.50	+2.62	+1.15	AUD/USD	0.6524	+1.73	+0.54
아연	2,024.00	+3.19	-0.22	USD/CAD	1.3945	-1.16	-0.44
옥수수	320.75	+0.47	+0.71	USD/BRL	5.7246	-2.23	-1.63
밀	497.00	-0.65	-3.91	USD/CNH	7.119	-0.21	+0.19
대두	845.00	+0.78	-1.17	USD/KRW	1232.40	+0.11	+0.98
커피	107.75	+0.84	-2.71	USD/KRW NDF 1M	1225.27	-0.63	+0.1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24	+8.13	+1.42	스페인	0.729	-2.60	-8.00
한국	1.395	+1.80	-7.50	포르투갈	0.848	-2.60	-8.30
일본	-0.007	-0.80	-2.10	그리스	1.976	-7.40	-17.70
독일	-0.467	+6.40	+4.50	이탈리아	1.670	-19.10	-20.60